

이와테 대학 한일교류 세미나 참여후기

일어일문학과 60180130 손율이

한일교류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회만 되면 교류활동에 참가해왔습니다. 작년에는 한일 '소프트 파워' 사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한 달 짜리 여성가족부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참가했던 활동은 그 때와 또 다른 분야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새로운 주제에 대해 생각하며, 나아가 조사 내용을 일본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다 보니 한국의 여러 역사와 더불어 일본어 사용에 대한 폭도 넓혔습니다.

취업, 성적 마이너리티, 최근 코로나와 미디어 동향 등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에 맞추어 골고루 진행하다 보니, 평상시 제가 관심이 특별히 많았던 부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한국의 변천사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어느 한 시대에 편향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역사 흐름에 대해서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건들을, 직접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며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에게 그 일들에 대해 설명해주려면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분야의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어 다양한 단어들을 새롭게 듣고 말하는 기회가 생겨서 언어 부분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은 각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편향적으로 조사해 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본 분들은 백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궁금해하고, 제가 소개하는 부분을 객관적인 정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매 시간 열심히 찾아보고 참여했습니다. 주가 된 역사에 반대되는 진영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찾아보게 되어 제가 더 공부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령 요즘의 한국은 TV를 잘 안 보는 추세냐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대외활동과 흥미에 대한 특성상 많이 보고, 저녁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TV를 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답변과 함께 넷플릭스 등의 OTT 서비스를 통해 몰아서 보거나 혼자 시간이 될 때 보는 비율이 훨씬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식의 반대 예시도 덧붙였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이 각 주차의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이나 주변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일본의 친구들과 전혀 다루어본 적이 없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던 일본어들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사전을 찾아가며 말해야 하는 한계가 생겨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졌던 팀 프로젝트에서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제 의견이나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논문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 관심 분야에서는 주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주장해볼 걸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끝난 후에도 문득문득 생각날 정도로 제 욕심껏 따라주지 않는 일본어 실력에 언제나 아쉬움이 뒤따랐지만, 지도해주셨던 혼쵸 미카 선생님께서 계속 기다려주시고 먼저 기회도 주신 덕에 아쉬움보다 더 큰 따뜻함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마치 잠겨있던 게임 맵을 여는 것처럼 제가 아는 세상이 점점 더 넓어져서, 제가 주체적으로도 더 찾아보고 당연하게 지나쳐온 사회적 토픽들과 그 내막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구적인 관심의 증대와 열정의 고취로 이어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졌던 시간이 벌써부터 그립고 아쉽게 다가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